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4월 30일 발행 (391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3 ISSUE
안경 피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부 안경원에서 1만원~10만원까지 피팅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06 NEWS IN NEWS
식약처가 콘택트렌즈를 제3의 다른 사람과 돌려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기사 제보 및 기고 문의

대 상 | 전국 안경사 및 업계 관계자
내 용 | 안경업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메 일 | Opticweekly@naver.com







특허 출원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1879359호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2222850호

NEW 1.60 DAS

1.60 양면 비구면 싱글비전 렌즈 출시!

정밀한 설계로 탄생한 신제품, **1.60 양면비구면 싱글비젼 렌즈**가
한미스위스광학(주)의 기술로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www.hslens.co.kr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4월 30일 발행 (391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EIN
www.ahinkorea.com
1박스도 전국 무료배송
주문 전화 031)987-9173
EDP 01 18(W)×24(H) mm
EDP 02 24(H)×24(W) mm
EDP 05 18(W)×18(H) mm

니시무라 안경공구 한국총판
취급품목 : 니시무라 공구 및 소모품, 니시무라 검안 관련품, 변색+편광 세미렌즈, 연마용 청테이프(일제)
키에스 상사
010-4289-4649
주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6, 3층



뒤늦은 결단… '안경 피팅료' 청구 확산 조짐

서울 여러 안경원서 피팅료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청구… 전문 안경사의 '피팅 기술료' 청구에 소비자들도 고개 '끄덕'

일선 안경원에서 '안경 피팅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동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제공하던 안경 피팅을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부과하는 안경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이 같은 안경사의 피팅료 청구는 그만큼 소비자들도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착용이 불편한 것보다 안경사의 전문기술로 자석처럼 흔들림 없는 안경 피팅을 인정·선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경의 전문가적 정밀 피팅은 서비스료 청구는 물론 객단가 상승으로 안경원 영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안경 피팅료 청구는 안경사의 고유한 권리로, 안경원 수익를 향상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사진은 안경원에서 고객을 상대로 피팅 업무를 수행 중인 한 안경사의 모습이다.

국내 안경원에 피팅료 등 조제가공료의 현실화 추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된 주제다.

그 첫 시도로 1997년 5월 ㈔대한안경사협회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안경 조제가공료 산출'을 의뢰해 안경 1건당 3만 1천원(국산 선글라스 기준)이라는 결과물을 얻은 바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가격표시제 정책을 따르기 위해 대안협의 제13대 김호곤 집행부가 안경 가격을 템플에 표기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였다.

하지만 그 1년 뒤인 1998년에 가격표시제가 폐지되면서 안경 조제가공료 추진이 흐지부지되었으나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이나 백화점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판매되면서 피팅료 등의 현실화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선 안경사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자연 폐기되고, 그 10여 년 후인 2016년 지방의 한 안경사회에서 조제가공 요금표를 산하 안경원에 배포해 주목받기도 했다.

흘러내리고 쪼이는 안경은 소비자도 외면

안경이 국내에 도래한 1백여 년이 지나도록 안경 피팅과 조제가공료의 청구는 안경사에겐 아직 미완성의 영역이다. 더구나 대안협 등 사업자단체가 나서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성으로 안경사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위주로 안경사의 피팅료 청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안경 피팅료를 청구하고 있는 안경원은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스탠다드안경, 성수동 디클래식, 강서구 비엔나안경, 삼성동 로데오안경 등이다. 이들 안경원은 안경이 흘러내리지 않는 최상의 피팅으로 고객들로부터 큰 만족을 얻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은 2007년 7월부터 피팅료를 국산테 5천원, 수입테 1만원을 청구하다가 최근에는 1만원,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정도로 굳센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군포의 아이데코 안경원은 안경 피팅료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만큼 소비자에게 완벽한 자석피팅으로 유명하고, 꼼꼼안경 체인 같은 곳은 가맹 시작부터 안경 피팅료와 1:1 예약제를 실시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꼼꼼안경체인의 한 원장은 "처음 피팅료를 청구했을 때 종종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고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10명 중 3~4명이 인정할 정도로 안경의 피팅료를 인정하고 계시다"며 "타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이 불편해서 피팅을 요청하는 고객의 방문율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안경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밀 피팅하면 안경원 매출과 객단가 상승

사실 안경사의 피팅료 등 조제가공료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의 정당한 권리다. 특히 안경 피팅은 전국 모든 안경원이 지금 당장 시작해도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전문기술이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공테 고객의 확산으로 안경원이 '렌즈갈이' 조립공방으로 취급되며 안경 피팅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이제 많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의 피팅료(가공비) 현실화에 동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어느 안경원의 안경사는 "아직 피팅료를 청구하면 불쾌해하는 고객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국민 의식을 개선해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경 피팅료 청구는 전문화 시대에 전문 면허인의 마땅한 권리이고, 특히 안경원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조제가공료를 청구하는 안경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협회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분회별로 개별 안경원이 각자 현실에 맞게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사업자단체가 안경 기술료를 추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 즉 '사업자단체가 개인사업자에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다만 개개의 안경원이 적정 기술료를 스스로 산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 김태용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에 의료계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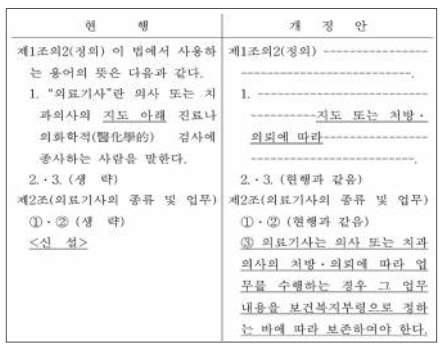
현행 '지도'를 '처방 • 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 폐기 촉구… 의료기사 8개 단체는 개정법률안 적극 환영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반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546)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현재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 그리고 각종 의료계 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6면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醫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신구문 비교.

아큐브×진정성, VIP 파트너십 세미나

양사의 파트너십 강화 목적으로 개최… 진정성 가맹점의 성장 및 발전 한목소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대표 이정현, J&J)과 ㈜진정성(대표 이재성)이 지난 14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2026 VIP 파트너십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양사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가맹점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 제품인 아큐브 MAX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J&J와 진정성이 기획하고 선보이는 '아큐브 비전센터'의 운영전략을 공유하며, 전문 검안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무리 시간에는 안경, 진정성 가맹점 주들을 위해 준비된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혜택과 상생 방안 등이 공유되었다. 한편 세미나 종료 후 J&J와 진정성은 아큐브에서 최근 선보인 상담 서비스인 MF PRO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약속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의 acuvueprofed@its.jnj.com

다비치안경, '4월 다빛데이' 출발~!

글로벌 브랜드 콘택트렌즈 중심으로 지난 26일까지 약 2주간 전개… 제품 할인과 다양한 혜택 제공

㈜다비치안경체인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4월 다빛데이'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콘택트렌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최근 콘택트렌즈를 선택할 때는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시력교정 관련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며 제품 유형과 착용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4월 다빛데이'에서는 아큐브·바슈롬·쿠퍼비전·알콘·인터로조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포함됐는데, 일부 제품은 추가 할인 및 3+1 증정 행사가 진행돼 주목을 이끌었다.



다비치안경의 관계자는 "이번 '다빛데이'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다양한 조건으로 만나볼 수 있게 기획된 행사"라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께서는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52-6177

폴리스, 지난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완판 행렬

룩옵틱스, GQ 5월호 추성훈 화보 공개 후 판매 급증… 일부 모델 조기 완판 조짐

아이웨어 브랜드 '폴리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남성 스타일 매거진 「GQ」 5월호를 통해 추성훈 씨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 다시 한 번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폴리스는 화보 공개 이후 각종 온라인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 온·오프라인 매장 전반에 걸쳐 제품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며, 일부 모델은 조기 완판이 예상될 만큼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해 협업 당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을 만든 흐름이 올해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이번 화보에는 폴리스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SPLT54K를 비롯한 주요 라인업이 공개되며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로 주목받고 있는 추성훈 씨는 이번 폴리스 화보에서도 특유의 강인한 카리스마와 남성미를 한껏 발산했다.



사진 출처 : GQ 코리아인스타그램@gq_korea

폴리스 아이웨어의 대한민국 공식 유통사인 ㈜룩옵틱스(대표 허명효) 관계자는 "지난해 추성훈 씨와 협업을 통해 이미 시장 반응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그 열기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화보 공개 이후 제품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조기 품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와의 협업은 단순한 화보 공개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마케팅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1599-3016

社 說

안경원을 죽이는 할인 현수막

▶미국에서 80세가 넘어도 은퇴하지 않는 '불퇴족'이 점점 증가한다는 소식이다. 1980년에는 80대 취업률이 11만명이던 것이 2022년에는 69만여 명으로 6배가 넘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80대 고용률도 1982년엔 2.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8.7%로 40년 사이에 8배나 늘어났다. 불퇴족은 미국 대통령만 보아도 금세 알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78세 2개월 때에 취임하고,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78세에 재임했다. 미국에선 60세가 넘어 현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옥토제너리언(Octogenarian)이라고 한다. 라틴어 숫자 8을 뜻하는 'Octo'와 60세를 의미하는 제너리언(genarian)의 합성어인 옥토제너리언은 80대(80~89세) 노인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일하는 노년'을 말할 때 쓰인다.

▶쇼핑학의 창시자인 덴마크의 마틴 린드스트롬은 '브랜드에 대표색을 만들라'고 했다. 그는 브랜드를 키우려면 인간의 오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최고라며 코카콜라는 유리병의 빨간색과 모양이 '시각'을 자극하고, 인텔은 광고에서 인사이드 음(音)으로 소비자의 '청각'을 자극하고,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새 차의 냄새인 '후각', 콜게이트 치약은 '미각', 뱅앤드올룹슨의 리모컨은 '촉각'을 자극해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다. 참고로 뱅앤드올룹슨은 덴마크의 오디오 전자전문 제조사의 음향기기다.

또 마틴 린드스트롬은 자신의 저서 「느낌을 팔아라」에서 미국 소비자는 '남자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60%가 '질레트'를 떠올리고, '바삭바삭'하는 소리를 들으면 70%가 '겔로그'를 떠올린다고 했다. 브랜드의 언어는 무의식에 잠재된 강력한 인식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경원'은 과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처럼 'K-안경'을 떠올리며 만족할까, 아니면 아직도 '할인경쟁'을 떠올릴까.

▶사하라 서부의 테레네 사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4.5m 크기의 테레네 나무가 있었다. 아카시아 군락지였던 이곳이 계속되는 사막화로 모두 멸종되고 오직 이 나무만 남아서 이정표 역할을 했다.

수령이 300~350년인 이 나무는 보통 10m 정도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과 달리 아파트 12층 높이인 33m 깊이까지 뻗어가며 황량한 사막에서 끝까지 생존했다. 그러나 이 나무는 1978년 11월 술에 만취한 한 운전사의 트럭에 받히어 부러진 후 지금은 그 자리에 철제로 만든 기념비만 세워져 있다.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이정표가 되었던 테레네 나무가 취객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종종 '안경 70% 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안경원을 본다. 소비자들이 이런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할인 현수막이 마치 술에 만취한 운전사의 트럭처럼 안경원을 들이받아 안타깝다. 아직도 국내 안경원이 더 할인해 줄 거품이 남아있는가?

/ 허선

바슈롬, '전문 안경원 인증 프로그램' 가동

멀티포컬 상담과 피팅력 강화 위해 운영… 수료 시 인증서 전달

㈜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의 비젼케어 아카데미에서 '바슈롬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전문 안경원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슈롬 울트라 원데이 멀티포컬' 입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에 대해 안경사의 이해도를 높여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피팅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안경원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바슈롬 멀티포컬 전문 안경원 인증서'와 함께 멀티포컬 피팅 시 활용할 수 있는 피팅용 플리퍼 및 사용 설명서가 제공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모든 안경사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회사의 관계자는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제품 이해도뿐 아니라 상담과 피팅 과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경사가 보다 자신감 있게 고객에게 제안하도록 이번 인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문의 070-7914-3993

POLICE

요즘 가장 핫한 '아조씨'의 선택은 폴리스

소비자가 10만원 대의 가격 경쟁력, **베스트 스타일 라인업**으로
권하지 않아도 **남성 고객이 먼저 찾는 폴리스!**
요즘 가장 주목 받는 **'아조씨'의 폴리스**, 그 매력을 지금 확인하세요!

문의 | 02-3016-8152



폴리스 화보 보기

소비자가 185,000원
SPLT54K



소비자가 185,000원
SPLT51K



소비자가 195,000원
SPLT60K



소비자가 195,000원
SPLT55K

LOOK
OPTICS

〈3면에서 이어짐〉

'의료계의 개정안 전면 부정은 시대착오적 발상'

취약 계층의 보건의료 접근권 확대가 개정안의 핵심… 국민 의료서비스 범위 제한은 곤란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지도'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해 현실적인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면허체계 붕괴'나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석한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과 의료기사 단체 임직원들.

결국 의료계가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를 문제 삼으며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다학제 협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현대 보건의료 체계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의사의 직접 지도에만 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효율성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자 안전은 각 직역의 협조로 확보해야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의 본질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방문재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 이는 결국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기반으로 의료기사의 전문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토록 조치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료계가 이를 두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문제를 외면한 채 가능성만 과도하게 부각하는 주장에 불과하고,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감독의 '부재'가 아닌 '방식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처방과 의뢰는 여전히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진료계획과 관리 책임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안전은 특정 직역의 배타적 권한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전문인력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책임소재 문제도 개정안을 반대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의 구분은 현행 체계에서도 존재하는 일반적 법적 문제로써 이는 제도 설계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 구조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우려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의료기사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이를 무면허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오히려 제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적 서비스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건강권 확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역 간 권한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인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의 관계자는 "안경사는 시력검사 및 굴절검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의 시기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 같은 전문성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역 간 이해관계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이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과도한 우려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

구찌, 내년에 구글과 스마트글라스 출시

케어링 그룹 CEO 직접 언급… 메타 • 에실로룩소티카와 본격 경쟁 예상

명품 브랜드 구찌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글라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구찌를 보유한 프랑스의 아이웨어 그룹 케어링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자본시장 설명회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글과 공동 개발하는 스마트글라스를 오는 2027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찌는 스마트글라스로 출시되는 최초의 명품 브랜드로 이는 구글의 확장현실(XR)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능이 탑재될 것이 유력하다. 그 결과 내년도 스마트글라스 시장의 주요 판도는 메타와 손잡은 에실로룩소티카와 새롭게 진입하는 구글·케어링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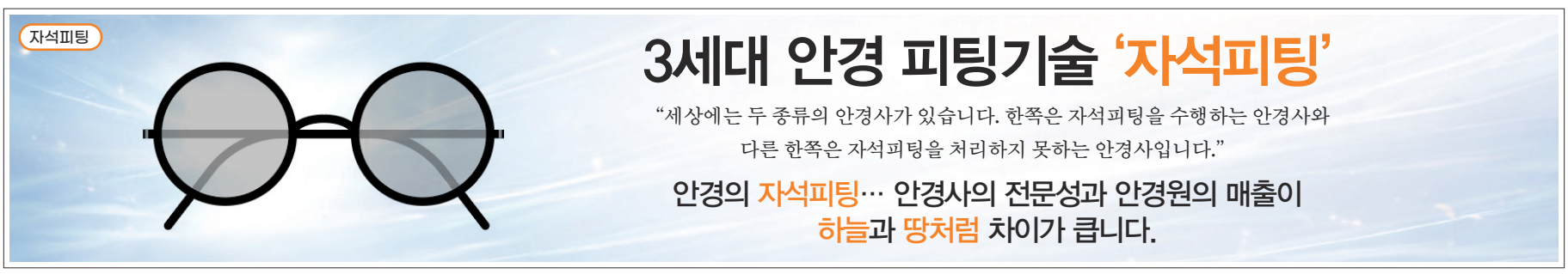
한편 유럽의 관련산업 관계자들은 케어링의 이 같은 행보에 안경과 주얼리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태리의 한 아이웨어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 명품으로 막대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구찌 브랜드를 안경 템플에 부착한 스마트글라스가 시장에 등장하면 이는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며 "과거에 단순한 시력교정의 목적을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되면서 시장의 파이를 확장한 안경이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의 스마트글라스 시장 진출을 통해 커다란 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택트렌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담당자, YTN 라디오서 해외직구와 공용 사용 금지 당부

컬러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을 잘못 구입·사용해 각막 손상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미용 소품이 아닌 의료기기인 만큼 허가 제품을 구입하고,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의료기기안전평가과의 노창호 과장은 "컬러렌즈는 각막에 직접 붙여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관리한다"며 "컬러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낮아 눈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충혈이나 통증, 이물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결막염이나 각막 손상,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콘택트렌즈는 해외직구로 구입하지 말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안경원 등 정식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 과장은 친구끼리 렌즈를 돌려 쓰는 경우를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각막염이 생길 수 있어 절대 공용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하고 ▶세척할 때는 수돗물이 아니라 전용 세척액을 사용할 것 등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눈이 충혈되거나 통증, 이물감, 눈물 증가,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렌즈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며 "증상을 방치하면 안과 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YE HEALTH CARE LENS

아이헬스케어 변색렌즈

LUTINA PHOTO2 & SELECT COLOR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 성료

세계 안광학계 주요 현안과 글로벌 이슈 집중 조명… 국내외 검안 전문가들 미래 비전 공유하며 소통의 기회 마련



지난 20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 개막식 행사장 전경.



APOC 개막 테이프 커팅식.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Asia Pacific Optometric Congress, APOC)’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약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APOC은 2년마다 개최되며, 각국의 안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권위 있는 국제교류의 장이다. 이번 APOC은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지난해 12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재정의된 의료기사법 통과 이후 우리나라 안경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열리어 그 의미를 더했다.

APOC, 아태 협력과 연대 확인한 플랫폼 자리매김

개회식에는 세계검안협회(WCO) Cindy Tromans 박사, APOC Rajeev Prasad 회장 및 Carly Lam 前회장 등 주요단체 인사와 국내 연구자 및 안경사와 업계 종사자, 아시아•태평양 등 해외 검안사와 관계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의 문화가 숨 쉬는 제주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APOC은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지역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번 만남이 학문적 공유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WCO 신디 트로먼스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아시아•태평양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APOC 라제프 프라사드 회장은 “기술 혁신과 학문적 우수성으로 유명한 한국의 연구자들 및 안경사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오늘의 APOC이 안광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세계 안광학 석학과 글로벌 기업서 주제 강연

이번 APOC의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눈 건강: 지속 가능한 안 보건을 위한 혁신과 전략’으로 ▶근시 유병률 증가에 따른 근시 억제 전략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시기능 문제와 훈련 ▶콘택트렌즈 처방의 다양화 ▶기능성 안경렌즈의 효율성과 적용 방안 등 현 안광학계의 주요 현안과 글로벌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대회 첫째 날에는 Prof.Chi-ho TO의 ‘근시억제와 광학적 디포커스-실험적 연구에서 임상적 적용’을 시작으로, Dr.Cindy Tromans의 ‘검안분야의 현재와 미래’, 추병선 교수의 ‘국내 근시관리 가이드라인’, Prof.Carly Lam & Mr. Jerome Lee의 ‘DIMS TED의 기술적 배경과 임상적 효율성’, Prof. Nathan Efron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염증반응은 일반적 생리적 과정’, Meredith Bishop의 ‘콘택트렌즈 혁신:우리는 노안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을까?’, Cheryl Donnelly의 ‘콘택트렌즈 착용과 디지털 눈 피로:임상적 고려’, Dr.Judith Ungewiss의 ‘과학적 근거 기반의 어린이 근시 관리:임상데이터와 렌즈 솔루션’ 등 안광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학계가 주목하는 핵심 의제에 대한 발표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어 대회 둘째 날에는 Meredith Graham의 ‘시각적 문제와 해결책’, Karen Walsh의 ‘양안시(합산) 기능의 최적화-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진화’ Prof.Joanne Wood의 ‘고령 운전자의 안 건강과 안전 운전’, Dr.Jeffrey Leung의 ‘발달성 난독증과 안경광학적 접근 방법’ 등의 발표가 이어져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관계자들이 글로벌 안광학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이영완 강사는 ‘노안 소비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한 콘택트렌즈 혁신’, 한국알콘 주은희 강사는 ‘왜 ‘워터가 중요한가:워터 렌즈 포트폴리오의 핵심 강점’, 쿠퍼비전코리아 이석헌 강사는 ‘저도난시, 사축난시 성공 피팅에 대한 호주 검안사의 임상사례 공유’, 한국호야렌즈 Carly Lam, Jerome Lee, 박욱정 부대표의 ‘근시 억제 새로운 기준:마이오스마트 iQ’가 각각 진행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안협의 관계자는 “많은 이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APOC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공유된 임상 지식과 연구 결과들이 아시아•태평양 검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내 안경사의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


그랜드볼룸홀에서 진행 중인 학술 강연.


강연을 경청 중인 수많은 APOC의 참가자들.


포스터 판넬 앞에 모여 이를 들여다 보고 있는 참가자들.

안경존중
세상에서 존중받는 안경원
세상에서 존중받는 안경사

WINC
안경존중 X 윙크렌즈

안경존중은
성급한 오픈이 아닌
리스크를 줄여 드립니다

수익 안정성을 높여 주는 **검증 중심 상권 분석 서비스**

RESPECT EYEWEAR

안경존중 본사가 제안하고 상의하는 '안경원과의 진짜 상생'

상권 분석 정확도 **90%** (자체기준) → A to Z 오픈 준비 → 오픈 후에도 이어가는 **진짜 상생**

운영 중인 안경원은 퀀텀 점프!
상권, 매각 컨설팅 **무료 지원**

신규 창업 안경원은
레드오션/블루오션 가리지 않고
개발부터 계약까지 A to Z 본사가 함께

HOYA essilor 대명광학주식회사 케미한경렌즈

최저가 노마진 공급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기타 소모품

상권에 맞춘
스탠다드 or **하이엔드 인테리어**

블로그 제작 및 체험단 지원
기대 매출 미달성 시 추가 마케팅 지원
월간 행사 기획 및 디자인 지원

포트폴리오부터 오픈코스트,
월간 스마트리포트 제공
체인 대표가 직접 하는 가맹 관리와 투명한 공개

우리은행 **창업 비용 최대 2억 원 지원 | 본사 우대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안경존중 전국 가맹점 현황

- 먹골점
- 의정부성모안과점
- 양주옥정점
- 영풍문고 사당역점
- 의정부민락점
- 진접내각점
- 신내프라디움점
- 광장점
- 마천점
- 북위례점
- 종로점
- 군자역점
- 수원KT위즈파크점
- ...

문의 주시면 안정적인 매출과 창업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가맹문의
010-8127-9938

가맹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100% 돌려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사위검사 · 프리즘 처방' 공개 세미나

핵심 검안법 6월 19일 개강… 수강생 공개 모집







고객의 표준 검안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위검사와 프리즘 처방.

한국안경아카데미(원장 손재환)의 김창진 박사가 평소 안경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위검사와 프리즘 처방 교육을 다양한 임상사례 중심으로 직접 강의한다.

초년차 안경사부터 숙련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진행된 굴절검사 세미나의 높은 호응으로 속개되는 교육으로 오는 6월 19일(금) 실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안경원 현장의 높은 관심과 안경사들의 사전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상사례로 풀어보는 사위검사와 프리즘 처방' 세미나는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임상에 기반한 증상 분석과 클레임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는 해석법과 함께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검안 팁이 강의될 예정이다.

특히 검안에 자신이 없는 초년차 안경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최고급 교육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 신청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안경아카데미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강사 : 김창진 박사
◇교육 장소 : 한국안경아카데미(의왕시 경수대로 273 강의실)
◇교육 일자 : 6월 19일(금) 오전 11시
◇문의 : 한국안경아카데미, 010-5573-7576
E-mail : kgacademy00@gmail.com

매출↑ 전문성↑ '제2기 안경피팅 기초반' 대모집

실무 '자석피팅' 집중교육… 6월 11일과 18일 개최







안경원의 매출 향상과 고객 신뢰감을 높이는 인기 최고 강좌인 '제2기 안경피팅 기초반'이 오는 6월 11일과 18일에 각각 개최된다. 한국안경아카데미의 손재환 대표 원장의 직강으로 개최되는 이번 안경피팅 기초반(베이직 코스)은 지난 3월 진행된 1기 과정이 전국 각지의 안경사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개최되는 교육으로 특히 자석피팅 교육은 안경원 매출과 직접 연관되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안경피팅 기초반 과정은 5년차 이하의 초년차 안경사를 대상으로, 안경피팅의 전체 흐름부터 코받침 • 다리 • 각도 조정의 핵심 원리, 공구 사용법과 손기술 중심의 디테일한 피팅법까지 강사의 직접 시범과 1:1 원포인트 피드백을 통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 • 운영된다.

그동안 안경사 개개인의 느낌으로 수행하던 안경 피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습 교육하는 이번 피팅교육은 안경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안경사의 고급 기술은 물론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 일정과 참가 신청 안내는 '한국안경아카데미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강사 : 손재환 대표 원장
◇교육 장소 : 한국안경아카데미(의왕시 경수대로 273 강의실)
◇교육 일자 : 6월 11일(목) / 18일(목) 오전 11시
◇문의 : 한국안경아카데미, 010-5573-7576
E-mail : kgacademy00@gmail.com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가디안 전 제품
초발수 코팅

since 1984
Guardian



야간운전과 골프장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가디안'**

항균 처리로 눈 건강까지 지킵니다!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 ☑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2026년도 안경사관학교 수료식… 파란색의 '다비치다움' 가득

사관학교 20주년에 사관 20명 • 공채 33명 배출… 다비치만의 중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탄력

더 열정적으로…







더 힘차고 신나게…

지난 21일 대전 위캔센터에서 개최된 '다비치안경 2026년 안경사관학교 수료식' 행사장 전경.



다비치안경 김인규 회장.



다비치안경 김봉건 상임대표.



다비치안경 김흥수 총괄대표.

㈜다비치안경체인이 지난 21일 대전의 위캔센터에서 '다비치안경 2026년 안경사관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국의 다비치 가맹점 원장 등 안경업계의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다비치안경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안경사관학교 20주년'이란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고 개최되었다.

다비치안경의 김봉건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관 20주년인 올해는 유난히 뜻깊은 수료식으로써 다비치는 사관의 성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큰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며 "오늘 수료하는 모든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비치에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격려를 전했다.

수료생들 다비치 가맹점서 핵심 인재로 활동

이날 행사에선 사관 20기 20명, 공채 33명 등 총 53명이 수료장을 받아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비치의 안성수 팀장은 "2026년 교육모집에는 총 24개의 안경광학과에서 인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사관 20주년을 맞아 공통과정 교육을 1월 5일부터 3개월간 진행했고, 수료한 인원들은 공채라는 이름으로 3월 27일부터 매장에서 근무 중인데, 이중 상위 20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한 달 진행해 사관으로 수료하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교육은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에 더욱 집중했고, 실제 교육과정에 보청기 과정을 많이 할애했다"고 교육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20명의 20기 사관 중 최우수 사관으로 선정된 우종범 교육생은 "이번 교육과정을 되돌아보면 이 시간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안경사로 성장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우수 인재를 배출한 여러 안광과에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김해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부산여자대•여주대•춘해보건대에는 각 100만원, 국제대•수성대엔 200만원, 전북과학대엔 300만원, 원광보건대에는 5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다비치의 김흥수 총괄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자사는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억 2천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로써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대학이 최소 3개 대학 이상은 나올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다비치에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계의 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다비치안경의 사관•공채는 지난 20년간 운영중인 다비치만의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사관 1,087명, 공채 702명으로 이들은 전국 다비치 가맹점에서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752-6177

eyewear fair 31ST

2026.05.07
10:00 - 18:00
MONDRIAN

제31회 EFIS 하우스 앤 인디 디자인 아이웨어 수주회

A BATHING APE EYEWEAR
ACCRUE
ACTIVIST EYEWEAR
AHLEM
Anne Valentin
Albert I'mStein
BJ CLASSIC COLLECTION
MEGANE MEGANE BOSTON CLUB
CHIMI
COBLENS
Colore made in JAPAN
DAIZO
EFFECTOR
ENALLOID
FACTORY900
Flair
Fulton
GARRETT LEIGHT CALIFORNIA OPTICAL
grafik:
have faith
H·fusion
illesteva
JACQUEMUS
JACQUES MARIE MAGE LOS ANGELES
JEAN PHILIPPE JOLY
Jkids
金子眼鏡 ESTABLISHED 1958
Kenny
KUBORAUM DREAMED IN BERLIN HANDMADE IN ITALY
lafont.
lash SEOUL
lazare studio
LINDA FARROW
LOZZA 1978
LUNETTERIE GÉNÉRALE
Lunetta BADA
mamuse
MARKUS T
MASSADA SWITZERLAND
MiNiMA
MODERN UNIFORM
Mr. Leight
MYKITA HANDMADE IN BERLIN
秀作展 NAITO KUMAHACHI
秀作展 NIWA MASAHIKO
NOVA AND MADE ITEM
OLIVER GOLDSMITH
Ptolemy 48 Handmade in Sabae Japan
PORSCHE DESIGN
RODENSTOCK
RAVENTEARS SEOUL
Selenite
Selecta S
8 SENSELECT
TEAM VERRIS
TITANFLEX
VTR TRUE VINTAGE REVIVAL
UNDOSTRIAL handmade in Paris
UKMK eyewear
VAVA
VioRou by Shingo Onodera
weareannu
WOLFGANG PROKSCH
Y CONCEPT / TITANIKA

hotel mondrian

몬드리안호텔 3층 그랜드볼룸 서울 용산 이태원 22-76 02.2076.2000



눈건강 절대만족 '네온 RGP렌즈' 안경원 전문성↑ 수익률↑

콘택트렌즈의 태생적 약점 완벽 개선한 네온 RGP렌즈… 인체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 갖추어 '꿈의 렌즈'로 호평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

우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실명할 확률이 100%다.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성안의 경우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 눈물막은 지속적인 깜빡임에 의해 내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물질과 콘택트렌즈 앞뒤 쪽의 미세물질을 제거한다. 결국 눈의 앞쪽 표면은 탈락된 표층 상피세포와 결막세포, 점액, 단백질, 지질 및 미생물, 염증세포 등 과다한 유기물이 축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물질은 주로 깜빡임에 의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 문제가 거의 없지만, 렌즈 밑에 들어간 상태로 렌즈 후방에 눈물막이 정체되면 충혈, 각막염, 피로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네온 RGP렌즈', 각막에 산소와 영양분 직접 전달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는 각막보다 크고, 렌즈를 통한 산소 공급으로 장시간 착용하면 눈물순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착용인의 각막에 맞추어 개인 맞춤 처방된 RGP렌즈는 지속적인 눈물 발생과 순환으로 렌즈에 의한 건조 증상이 거의 없으며, 각막의 습윤성 유지 및 노폐물 제거에 탁월해 눈물에 녹아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각막에 직접 전달한다.

눈물저장순환 디자인 TSGP 렌즈로 안전성 우수

인체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네온 RGP렌즈. 특히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건조 증상이 늘어나는 현대인에게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하는 네온 RGP렌즈는 눈물순환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비구면 디자인을 기본으로 눈물저장순환 디자인인 TSGP 렌즈를 개발, 세밀한 임상실험에서 그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콘택트렌즈의 최고 장점만을 채택해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RGP 콘택트렌즈 전문기업 네온 T.E.C.. 네온은 TSGP 디자인의 '네온 티어(Neon Tear)' '클래식(Classic)' '프라임 렌즈(Prime Lens)'를 출시해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안경원의 전문성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네온 T.E.C.. 네온의 RGP렌즈는 착용인과 안경원에 큰 만족을 주는 '꿈의 렌즈'다.

문의 1644-2806











Neon
눈이 자유로운 세상

눈(眼)이 너무 좋아하는 '네온 RGP렌즈'
안경사 전문가다움은 네온RGP 처방입니다.



네온 RGP 렌즈 정기교육

내용 : RGP렌즈 초급자 교육
일정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5층 1524호(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교육 문의 및 신청 1644-2806

업계 유일하게 자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네온TEC.
저희 네온TEC는 첨단 RGP렌즈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자동 처방 프로그램 이용방법

네온렌즈 검색 → 어플 설치 → 자동처방 실행

주문전화 | 1644-2806

ESSILOR INSTRUMENTS

2026년 안경사보수교육 특가

3월 1일 ~ 6월 30일 (4개월간)

NEKSIA Version 2 Series

The simple edging solution for daily workflow

가공 품질과 작업 효율에 있어 당신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 기능과 가공 정밀도에 있어 옥습기의 트렌드를 선도해온
135년 에실로의 기술과 노하우의 결정체 NEKSIA.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용자 친화도와 생산성을 갖춘 NEKSIA Version 2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NEKSIA 600 Version 2

무이자 48개월

NEKSIA 500 Version 2



- MINI BEVEL
- Chamfering
- Grooving
- Polishing
- Flat edge finish
- Bevel
- Drilling tilt 0-15° (NEKSIA 600)
- Optical Tracing (NEKSIA 600)

※ 무상AS 3년



탁월한 작업공정의 생산성 및 오토블로킹 기능
– 신속, 정확하고 광범위한 트레이싱
– 편리한 센터링 및 자동 블로킹



보다 쉽고 편한 작업
– 8.4" 고객 친화적 터치 스크린
– 신속한 작업 준비
– 1,000 개의 방대한 작업데이터 저장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최첨단 고급 기능
– 향상된 가공축 정밀도
– 최적화된 작업 사이클
– 정밀한 홈가공 면치기

2026년 안경사보수교육 특가

3월 1일 ~ 6월 30일 (4개월간)

시력의 새로운 차원을 열다

The Ultimate Wavefront Analyzer

vx 110

- ARK
- 1/100 Diopter
- Cataract
- Pupillometry
- Day&Night vision
- Keratoconus
- Aberrometry
- Topography
- Full EyeTra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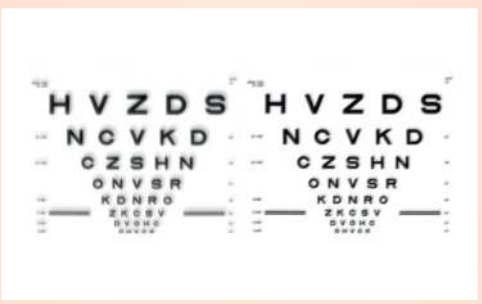


무이자 60개월
무상A/S 3년

◎ 초정밀 굴절력 측정



◎ 교정시력 시뮬레이션



◎ 안질환 관찰 (ex백내장)





LENSME



렌즈미, 난시용 컬러렌즈 '토리카 원데이' 탄생!

베스트셀러 '유스 • 유스온' 디자인 채택한 고기능 렌즈 출시
난시 고객이 즉석에서 구매하는 공급 체계 완벽 구축

㈜렌즈미(대표 송계진)가 난시용 컬러 원데이렌즈 '토리카 원데이'를 런칭했다.

렌즈미의 베스트셀러인 유스 블랙과 유스온 브라운을 적용한 디자인이 특징인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의 난시용 원데이 출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출시했다. 기존 한 달 착용, 장기 착용인 토리카 시리즈는 1:1 맞춤제작 특성상 주문 후 수령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신제품인 토리카 원데이는 난시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

컬러렌즈 '유스 블랙 • 유스온 브라운' 2종 본격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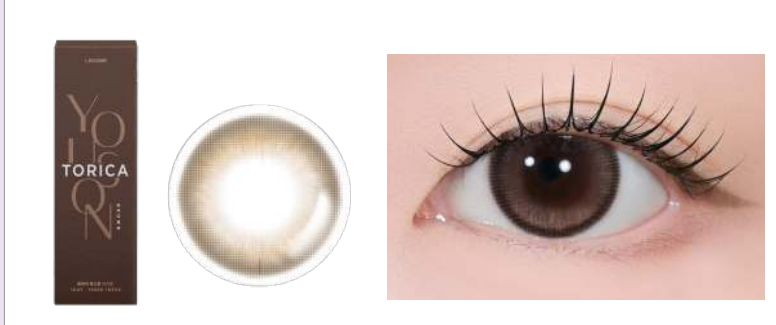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개발•출시하는 토리카 원데이는 ▶또렷하고 선명한 눈매를 연출하는 자연스러운 그래픽 직경(G.DIA) 13.0㎜의 블랙 컬러렌즈인 유스 블랙 ▶부드러운 브라운 톤과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특징인 그래픽 직경 13.8㎜의 유스온 브라운 등 2종으로 출시된다.

렌즈미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는 국내 최다 수준의 난시용 컬러렌즈 라인업을 운영하며 난시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왔다"며 "이번 토리카 원데이는 기존의 맞춤 제작 중심 시장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기다림 없이 바로 구매하는 난시용 컬러 원데이렌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콘택트렌즈 사용자 중 약 30~40% 가량이 난시로 알려져 있는데, 자사는 난시용 원데이 컬러렌즈의 출시를 통해 난시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리카 원데이는 1팩 10P 구성으로, 소비자 판매가는 25,000원이다. 문의 1577-2160



토리카 원데이 유스 블랙



토리카 원데이 유스온 브라운

LENSME

"독보적인 프리미엄 렌즈샵 렌즈미
지금이 신규 오픈 최적의 기회!"

인테리어 비용 파격지원





전속모델 고윤정

신규 가맹점에 드리는 혜택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인기있는 렌즈미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오픈이벤트	**PB렌즈 1200만원**	**온/오프라인**
전폭 지원	위탁 지원	홍보 지원

우선 오픈 지역

서 울	명동 | 구로디지털단지 | 수유 | 신논현 | 오목교 | 이수 | 압구정 | 마곡 | 상암 | 왕십리 | 여의도 | 이태원
경 기	위례 | 평촌학원가 | 미금 | 모란 | 동탄 | 철산 | 하남 | 미사역
강 원	강릉 | 동해
충 청	서산 | 세종

가맹문의 김진우 부장 010-9487-9045 | 김동훈 과장 010-6336-9849

에실로, 차세대 단초점렌즈 '아이젠' 런칭

디지털 시대에 최적 비구면 설계한 단초점 '아이젠' 본격 시판… '블루UV 캡트루' '크리잘 코팅'으로 현대인 시환경 쾌적 제공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디지털 시생활 맞춤 설계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단초점 안경렌즈 '아이젠(Eyezen)'의 출시 행사를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안경사 및 안경렌즈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현대인의 달라진 시야 환경과 이에 대응한 아이젠의 기술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인사말을 전하는 에실로코리아 소효순 대표.



행사장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

성인용 및 어린이용 등 3종 라인업 출시

이번에 개발 출시하는 '아이젠'은 디지털 기기 사용할 때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경렌즈다.

이날 행사에서 레오나르도 교육팀은 아이젠이 ▶에실로의 독자적인 'ERGORAMA' 연구를 기반으로 현대인의 시생활 특성을 반영한 비구면 설계로 제작되고 ▶눈 건강에 유해한 블루-바이올렛 라이트를 필터링하는 '블루UV 캡트루' 소재를 사용하고 ▶반사, 스크래치, 얼룩 등으로부터 렌즈를 보호하는 '크리잘코팅으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한 단계 진화한 고기능 렌즈임을 자신있게 소개했다.

에실로코리아의 소효순 대표는 환영사에서 "아이젠의 핵심은 실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하게 연구해 완성한 '편안함'"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해외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하는 렌즈인 만큼, 국내에서도 아이젠을 통해 단초점 렌즈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젠 런칭 행사를 준비한 에실로코리아 임직원들의 단체 사진.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는 아이젠의 설계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게임존, 크리잘 코팅의 내구성을 비교 체험하는 체험존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고, 이어 파트너 안경사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전개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9일 개최된 단초점 안경렌즈 아이젠의 런칭 행사장 전경.

한편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아이젠은 전 연령 사용자를 위한 '아이젠 스타트', 6~12세 어린이를 위한 '아이젠 K', 눈 피로를 심하게 느끼는 착용자를 위한 '아이젠 부스트' 등 3종 라인업으로 구성돼 연령과 시 생활에 맞게 최적의 아이젠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6350-1050



우수기술기업 인증서 획득

E:N®

PROFESSIONAL Rx CONSUMABLE

안경렌즈용 소모품 전문기업

ISO 14001:2015

ISO 9001:2015



엣지(블로킹) 패드*

초발수 렌즈용 테이프*

1박스도!
국내 전지역
무/료/배/송

AHIN **USA** / AHIN **HOLLAND** / AHIN **INTERNATIONAL** / AHIN **CHINA** / AHIN **INDIA** / AHIN **SOUTH AFRICA**

엣지(블록킹) 패드

EDP01	EDP02	EDP05	(VAT포함가)
			**55,000**
18(w)x24(h)mm	24(w)x24(h)mm	18(w)x18(h)mm	(1,000PAD / BOX)

안정적이고 우수한 접착력

EDP 01





EDP 02





EDP 05





E:N 아인 인터내셔날

대표전화 (주문 및 문의)

031-987-9173

sales@ahinkorea.com

http://www.ahinkorea.com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인뷰, 레포츠 전용 초편광 선글라스 출시

Swiss Eyewear 그룹의 브랜드 INVU에서 오토바이, 산악 자전거 등 거친 야외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히 헬멧과 함께 편안하게 착용하는 새로운 초편광 선글라스를 출시했다. 모든 모델은 인뷰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초편광 렌즈 기술을 탑재해 까다로운 조명 조건에서도 뛰어난 눈부심 감소와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中 원저우(WOF), 오는 5월 8일 개막

국내외 700여 업체 참가… 브랜드 갤러리아 등 5개 핵심 존 인기 예상

제24회 중국원저우국제광학전(WOF)이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저우 국제컨벤션및전시센터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55,000㎡(약 16,638평) 이상의 전시 면적에 700개 이상의 업체 참가가 예정돼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핵심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 갤러리아(1번 홀과 2번 홀 사이)

중국 안경 고유의 브랜드 스타일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여러 브랜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도매, 소매 또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딱 맞는 파트너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뉴 인 옵틱스(2번 홀)



신제품 출시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공급망 혁신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참신한 프레임 디자인부터 초경량 소재까지 올해의 신상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코스다.

▶스마트 안경 쇼케이스(3번 홀)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경에 집중한 구역이다. 라이브 시연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 아이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구매자-공급자 미팅(1번 홀)

중국의 우량 제조업체와 직접 연결해 주는 맞춤형 사전 매칭 미팅으로 효율적인 1:1 상담을 통해 협상 과정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즉시 수령관(9번 홀)

10,000개 이상의 완제품 모델이 재고로 진열되어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 공장 직영가 혜택과 소량 혼합 주문 지원으로 재고 부담 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WOF의 관계자는 "흥미로운 5개의 전시 구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원저우광학전의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www.opticsfair.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본 성인 22%가 콘택트렌즈 사용

日 렌즈원,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서 '거의 매일 사용'은 15.5% 차지

일본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업체인 렌즈원과 디지털 마케팅 업체 넥서가 콘택트렌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2%가 '근무 중 콘택트렌즈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자세한 사용 빈도는 ▶'거의 매일 사용' 15.5% ▶'주중 며칠 사용' 4.5% ▶'특정 업무 때만 사용' 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는 ▶'외모와 인상을 좋게 하고 싶다' 29.5% ▶'안경에 비해 넓은 시야가 맘에 든다' 25.0% ▶'안경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21.6% ▶'마스크와의 궁합' 13.6% 등으로 조사됐다.

렌즈원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위화감이 없는 외형이나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점 등 안경에 비해 기능성이 뛰어나다"며 "미팅으로 첫인상을 중시하거나 안전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콘택트렌즈는 신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전했다.



케어링 아이웨어, 1분기 실적 호조

전년동기보다 3% 증가한 8,504억 기록… 향후 성장 회복과 이익률 집중

글로벌 명품그룹 Kering의 자회사인 Kering Eyewear가 지난 15일 올해 1분기에 4억 8,900만유로(약 8,5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업 및 기타 부문 매출은 3천만유로(약 522억원), 보고 기준으로는 7% 감소했으나 2025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증가했다.

케어링 그룹의 루카 데 메오 CEO는 "2026년 1분기 그룹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얼리 부문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브랜드가 분기 동안 놀라운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BOOK | 손재환 원장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실전 가이드 '안경사의 기술'⑨



전화 응대

①전화 응대

전화응대는 고객과 접점의 제1선이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한 분의 고객과의 첫 만남이고, 전화 한 통으로 매장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목소리로만 고객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나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전에 나는 직원으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적도 있다. 목소리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목소리를 흉내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잘 안되는 것이 전화 목소리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화 응대는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로 고객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주 보고 응대하는 것보다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1. 전화 응대의 기본
-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응대한다.
-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리게 들리더라도 첫 대면 시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커뮤니케이션
- 고객이 말하는 도중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호응하며 듣는다.
- 고객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 발음을 또박또박한다.
- 불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말꼬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 전화가 도중에 끊겼을 경우 안경원에서 다시 걸도록 한다.
- 수화기를 막고 큰소리로 담당 안경사를 부르거나 잡담하지 않는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늦게 받았을 경우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는 멘트를 한다.
- 전화 종료 시 고객이 끊은 것을 확인한 후 끊는다.

▶적절한 전화 응대 용어('아'다르고 '어'다르다)

부적절한 응대 용어	적절한 응대 용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 음질이 좋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만,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어디세요?	실례합니다만, 전화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 그러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뭐라구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아보시고 다시 전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네, 고객님 말씀 이해했습니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美 FDA, 황반부종 치료 '바비스모' 승인

안구에 주사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미국시장에 4분기부터 출시



스위스의 다국적 의료회사 Roche 그룹의 계열사인 Genentech사가 지난 13일 망막정맥폐쇄(RVO)로 인한 황반부종의 치료제인 'Vabysmo'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바비스모는 안구에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그리고 망막정맥폐쇄 후 황반부종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넨텍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레비 개러웨이 박사는 "RVO는 미국인 백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만성적인 특성 때문에 장기간의 유리체강내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승인으로 시력장애 환자들에게 일관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바비스모는 오는 4분기까지 미국시장에 출시한 후 전 세계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NJ, 올해 1분기 매출 '약 36조원' 기록

전년 동기대비 9.9% 상승…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제품군도 5.5% 성장

Johnson and Johnson(JNJ)이 지난 14일 올해 1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한 후 2026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JNJ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241억달러(약 35조 6,367억원)로 의료기기 사업 부문에서 시력 및 수술 관련 제품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비전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6.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시장 접근성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특히 콘택트렌즈 매출은 아큐뷰 오아시스 원데이 제품군의 양호한 실적과 전략적인 가격 조정에 힘입어 5.5% 증가했다. JMJ의 호아킨 두아토 CEO는 "2026년을 순조롭게 시작한 우리는 성장과 영향력을 약속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JNJ의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번 분기는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 획기적인 제품도 승인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한편 1분기 성과에 고무된 JNJ는 2026년 연간 매출 전망치를 1,003억달러(약 148조 5,042억원)에서 1%가량 상승한 1,013억달러(약 149조 9,848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사필로, 리즈 클레이본과 계약 갱신

리즈 클레이본 아이웨어의 디자인•제조•유통 다년간의 라이선스



이탈리아의 글로벌 아이웨어 기업 Safilo 그룹이 지난 14일 Liz Claiborne 브랜드의 안경테 및 선글라스 디자인, 제조, 유통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사필로의 북미시장 가브리엘 쿠사니 소다노 최고영업책임자(COO)는 "북미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리즈 클레이본과의 파트너십을 재계약해 기쁘다"며 "클레이본 브랜드의 전통인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리고 일상적인 세련미를 사필로의 디자인 역량 및 유통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리즈 클레이본 안경 컬렉션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즈 클레이본의 마이클 페르난데스 최고도매 및 개발책임자(CSO)는 "우리는 사필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랫동안 리즈 클레이본 브랜드에서 최고 수준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파트너십을 연장하여 고품질의 트렌디한 안경을 꾸준히 선보이게 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美 테네시주, 검안사의 레이저 수술 승인

상원 법안 2076호 통과 → 주시자 승인… 홍채 절개술 등 3종 시술 확보

미국 테네시州가 이달 초에 상원 법안 2076호를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4일 빌 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검안사들에게 안과용 레이저의 사용을 승인한 16번째 주이면서 올해 2번째 주가 됐다. 이로써 테네시주의 검안사는 인증을 받으면 레이저 주변 홍채 절개술(LPI), 선택적 레이저 트라베큘로 성형술(SLT),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YAG) 캡슐 절개술 등 3가지 특정 레이저 시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검안사협회(AOA) 입법위원회의 아만다 텔린저 위원장은 지난 17일 "테네시 검안사들이 수년간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획기적인 승리는 환자들과 테네시주 안과 건강관리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오늘날 검안사들이 받는 교육과 임상을 반영한 이번 법안의 승인은 우리 주의 검안 범위를 현대화는 물론 테네시주를 현대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안과 관리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AOA의 재키 M.보웬 회장은 "테네시의 성공은 검안사들이 환자 중심의 비전과 지속적인 헌신을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을 반영한다"며 "우리 AOA는 현재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여러 주에서도 승인이 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일부는 주 의회가 규칙을 공포할 수 있도록 즉시 발효되며, 법안의 나머지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로덴스톡, 동유럽 렌즈 기업 2개사 인수

크로아티아의 DEA Lens Project doo사, NI-VA Lens doo사 동시 흡수



크로아티아 오시예크市에 소재한 DEA렌즈 프로젝트 두의 본사 전경.

혁신적인 안과의료의 글로벌 리더이자 생체인식 안경렌즈 제조업체인 Rodenstock 그룹이 지난 6일 크로아티아의 안경렌즈 및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DEA Lens Project doo사와 NI-VA Lens doo사를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덱스톡과 20년 이상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DEA렌즈 프로젝트 등은 그간 독립 안경원을 중심으로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다.

로덴스톡 경영진에 합류가 예정된 DEA렌즈 프로젝트 두의 다미르 보로바츠 전무이사는 "로덴스톡 팀에 합류해 기쁘고, 이번 사업적 성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크로아티아와 동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콘택트렌즈의 빈 케이스 회수 앞장

日 아이케어사, 472개 지자체서 회수… 2010년부터 총 853톤 재활용



콘택트렌즈 전문점 '아이시티'를 전개하는 일본의 아이케어 컴퍼니가 디스포저블 렌즈의 빈 케이스에 대한 리사이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같은 재활용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원유에서 정제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빈 케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케어사는 사용한 콘택트렌즈 케이스를 전국의 아이시티 가맹점에 설치된 회수 박스에 넣는 '아이시티 에코 프로젝트'를 실시중인데, 이는 타 메이커나 구입처의 케이스도 회수 가능하다.

아이시티의 관계자는 "회수 박스는 자사의 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3,346개의 학교와 472개의 지자체에도 설치•회수하고 있다"며 "회수된 빈 케이스는 리사이클 공장에서 분쇄•가공돼 재생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올해 2월까지의 회수량은 빈 케이스로 약 8억 5,300만개 분인 853톤"이라고 덧붙였다.

알콘, 美 웨스트버지니아에 추가 투자

헌팅턴 공장에 1,194억원 투자… 신규 인원 75명 추가 모집


웨스트버지니아주 헌팅턴시의 알콘 생산공장.

웨스트버지니아州의 패트릭 모리시 주지사가 지난달 말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안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Alcon이 州에 8,100만달러(약 1,194억원)를 투자해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모리시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백내장 및 시력교정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등을 생산 중인 헌팅턴 공장은 약 620명의 웨스트버지니아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데, 추후 새로 모집할 75명의 평균 연봉은 8만달러(약 1억 1,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알콘의 확장은 웨스트버지니아가 단순히 사업하기 좋은 곳이란 사실을 넘어 기업이 번창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첨단 제조와 숙련된 인력, 그리고 임직원들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사회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콘의 글로벌 제조 및 기술운영 담당인 패트릭 콜리어 부대표는 "이번 헌팅턴 사업장의 확장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콘 헌팅턴 공장이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객과 환자에게 정밀하게 설계된 안과 의료기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

국시원, 국가시험 발전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시험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국가시험의 변화 흐름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02)2087-8955

케미, '처방 • 홍보 사례 공모전' 성공 개최

고객과의 소통 경험 사례 공모전 성공 개최… 부산 윙크안경원 대상 차지

㈜케미그라스(대표 반경민)에서 국내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처방 및 홍보 인사이트 사례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안경원이 직접 경험한 처방 사례와 홍보 전략의 공유 및 업계의 디지털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남겼다. 이번 공모전에는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가 출품되었으며, 실제 고객과의 소통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처방제품의 이해와 콘텐츠의 전문성, 창의성,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상작을 선정했는데, 심사 결과 대상은 부산 윙크안경원의 현영조 원장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함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케미렌즈의 관계자는 "많은 안경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공모전이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며 "자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에 디지털 홍보 모델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 윙크안경원의 현영조 원장.

문의 055)387-3030

으뜸50, 대구진천점 • 속초점 大개원

중형급 가맹점으로 성공 경영 예약… 가맹 열기와 인기 '쭈~욱'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이 멈춤 없는 뜨거운 가맹 열기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진천점과 속초점이 각각 화려한 오픈 이벤트와 함께 본격 개원한 것.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의 대구진천점은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의 제3번출구 인근의 대형 쇼핑몰 2층에 자리 잡아 막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83㎡(약 25평)의 일반적인 매장 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주차장을 보유해 고객의 편리한 방문을 돕고 있다.

같은 날 개원한 속초점은 강원 속초시 청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79㎡(약 24평)의 규모에 매장 전면에는 자이아파트, 효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지하 2층까지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향후 커다란 발전이 전망된다.

문의 1522-1584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으뜸50안경 대구진천점과 속초점

쿠퍼비전, 소아근시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구 • 부산 의료진과 소아근시 연령 • 생활패턴 맞춤형 처방 전략 공유

쿠퍼비전코리아㈜(대표 김현주)가 지난 21일과 23일 대구와 부산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쿠퍼비전 소아근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부산지역 의료진 70명이 참석해 소아근시 관리의 최신 임상 동향과 처방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소아근시 관리 전문가인 케이트 기포드 박사와 국내 정상급 소아안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소아근시 처방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쿠퍼비전코리아의 김현주 대표는 "자사는 소아근시 관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안과 전문가들과 협력해 왔다"며 "최근 국내 의료진들의 소아근시 솔루션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구•부산 심포지엄은 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문의 1688-5401

알콘, 콘택트렌즈 교체 주기 불량 확인

착용인 설문조사서 51%가 관리 미흡… 장기 착용 렌즈는 교체 주기 더 심각

세계적인 안과 전문기업 알콘이 국내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이 권장하는 교체 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의 교체 주기 미준수의 주된 원인은 교체 주기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눈 건강을 위한 렌즈 착용 환경조성이 부족한 때문으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권장하는 교체 주기를 지키고 있었으며, 나머지 응답자의 26%는 권장보다 길게, 25%는 오히려 더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렌즈 유형별 교체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2주 교체용 렌즈 착용자의 72%가 권장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한 달용(53%), 일회용(27%) 순으로 나타나 정기 교체 렌즈의 교체 주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알콘 비젼케어 사업부의 보이체 흐미할리크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교체 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진정한 혁신과 함께 더욱 건강한 콘택트렌즈 착용 습관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80-566-9202

페라가모, 日 모델 '야노 시호'와 케미

룩옵틱스, 세련미 넘치는 페라가모의 야노 시호 촬영 화보 공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페라가모 아이웨어가 세계적인 여성 패션지 「보그」 5월호에 일본의 탑모델 야노 시호 씨와 함께 선글라스 화보를 공개했다. 페라가모 아이웨어는 세련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성층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로, 주요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확고한 입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화보도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성들의 워너비 셀럽으로 다양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야노 시호 씨는 이번 화보에서 기존의 우아한 이미지와 달리 파격적인 변화를 선보이며 반전 매력을 드러내 눈길을 모았는데, 그동안의 단아한 분위기와는 다른 과감한 연출 속에서도 탑모델 특유의 아우라로 색다른 이미지를 완성했다.

페라가모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룩옵틱스(대표 허명효)의 관계자는 "야노 시호 씨의 이번 화보는 단순한 스타일 제안을 넘어 페라가모 아이웨어가 지닌 세련된 여성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보를 통해 공개된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의 페라가모 아이웨어의 라인업은 룩옵티컬 온•오프라인 매장과 전국 유명 백화점, 면세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사진 출처: 보그코리아 인스타그램@voguekorea)

문의 1599-3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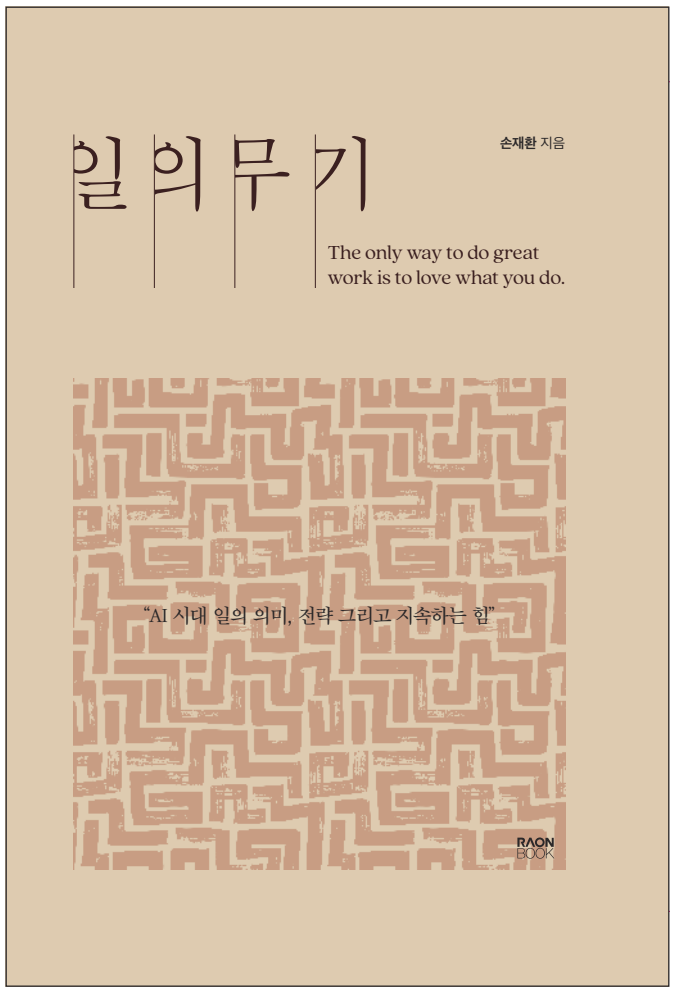
린드버그, 세계 최고 디자인상 수상

블록 티타늄 컬렉션, iF 디자인 어워드 • 레드닷 디자인 동시 영예

덴마크 프리미엄 아이웨어 브랜드 린드버그가 새롭게 선보인 블록 티타늄 컬렉션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6'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을 동시에 석권했다. 이번에 디자인 상을 수상한 블록 티타늄 컬렉션은 프런트와 힌지를 하나의 티타늄 시트에서 레이저 커팅해 제작한 혁신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린드버그의 상징적인 원형 힌지 디자인을 과감한 큐브 형태로 발전시키고, 특허받은 힌지 구조는 나사와 용접 없이 정교한 비틀림 기술로 완성, 이 같은 설계는 기존 아이웨어 디자인의 기본을 깨는 동시에 린드버그의 정밀한 기술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두 개의 상을 수상한 린드버그는 현재까지 총 114개의 국제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6394-7071

신간



20대 중반에 개원해 35년간 한결같이 안경원 운영에만 전념해온 손재환 대표 원장.
손재환 대표 원장의 9번째 저서인 「일의 무기」는 갖가지 어려움을 용기와 성실함으로 이겨낸 손재환 대표 원장의 자전적 경영서이다.
특히 손재환 대표 원장은 이 저서에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진 난관으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해 찾아오는 즐거움, 즉 일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고수의 경지'에 오르고, 이때부터 인생 전체가 긍정 에너지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자전적 경영 지침서인 「일의 무기」는 고단한 삶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보감(寶鑑)의 저서이다.

Part 1 - AI 시대에 왜 일하는가?
Part 2 - 일 잘하는 고수는 이것이 다르다
Part 3 - 바짝 벌어서 평생 놀 수 있을까?
Part 4 - 나의 일의 가치를 높이는 14가지 질문
Part 5 - 어떤 사람이 되어, 누구와 일할 것인가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행 | 260쪽 | 22,000원

손재환 대표 원장 주요 저서



장사 교과서 **'사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76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매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7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고객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9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직원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8쪽 | 18,000원



'안경사의 기술'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4쪽 | 29,500원



경영학 원론 **'안경혁명'**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7쪽 | 15,000원



한국형 탈무드 **'일류 아빠의 생각'**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5쪽 | 15,000원



흘러내리지 않는 **'안경피팅의 정석'**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6쪽 | 38,000원

국내 최고 하우스브랜드 'EFIS' 5월 7일 개최

서울 이태원 모드리안호텔서 열기 속 개막… 봄 컬렉션 한눈에 조망하는 절호 기회

국내외 대표 하우스 아이웨어 및 인디 아이웨어 16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2026년 S/S 시즌 컬렉션 수주회(EFIS)가 오는 5월 7일 서울시 이태원의 모드리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EFIS는 2026 S/S 시즌의 신제품으로 변화하는 아이웨어 시장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성을 살피는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EFIS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 EFIS는 브랜드와 리테일 간 긴밀한 소통을 중시한 수주회로 현장 주문은 물론 심도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장을 선도하는 안경원들의 성공 매출을 강화하는 기회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업계 관계자 간의 교류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EFIS는 그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EFIS에는 J&B 코리아·로덴 코퍼레이션·마루 아이티씨·마이스터 옵틱스·마이키타 코리아·블록 버스터·빅스타 아이엔지·씨슬로우·엠투 아이티씨·오이코스 아이웨어·오피스 더블유·원앤 온리·뷰 옵티컬·지오 코퍼레이션·한독 광학·커스텀 등 총 16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010-5219-8126

올봄 안경은 꾸안꾸 스타일이 대세

룩옵티칼, 투명 브라운 톤의 안경 하나로 '포엣코어' 스타일링 완성



올봄 패션 트렌드는 정제되고 서정적인 포엣코어(Poet-core)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세기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로 안경은 이 무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하드웨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안경 프레임의 소재가 인상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질감과 색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출하는 패션의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명한 브라운 톤을 가진 룩옵티컬의 아세테이트 프레임은 포엣코어가 지향하는 '부드러운 지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며, 뿔테 특유의 부피감은 얼굴의 윤곽을 보완하면서도 브라운 컬러가 주는 시각적 온기는 인상을 한층 유순하게 정돈한다. 또한 실버 메탈은 차분하면서도 선명한 예술가적 정체성을 완성해 클래식의 정석으로 불리는 블루 계열 옥스포드 셔츠와 매치하면 스마트한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문의 1599-3016

ic! 베를린, 30주년 기념작 공개

베를린의 자유 • 실험정신 • 혁신 담아… 브랜드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 강조

㈜지아이비(대표 장창균)의 주력 브랜드 ic! berlin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1996년 베를린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ic! 베를린은 자유와 실험정신이 공존하던 도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데, 이후 30년간 아이웨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과 특허받은 '스크류리스 힌지' 기술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ic! 베를린의 핵심 철학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과 정밀한 엔지니어링에 있는데, 이번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캡슐 컬렉션은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기술적 진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ic! 베를린의 관계자는 "자사는 30주년이라는 시간적 기념을 넘어 브랜드의 근간이 된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2)6205-5909

'배럴'… 특별 판촉 프로모션 출발!

배럴 공식인증 판매점의 영업 혜택 강화… 5월부터 소비자 사은품 증정

㈜이롬파트너스(대표 신동성)가 본격적인 워터스포츠 시즌을 앞두고 4월 말부터 전국의 배럴 도수수경 공식인증판매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특별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안경원에 직접적인 수익 개선과 영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프로모션 기간 내 안경원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안경원의 마진율을 높아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안경원을 방문해 배럴 도수수경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행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안경원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집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롬파트너스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 판촉 프로모션은 최일선 파트너인 안경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문의 031)245-6867

'플럼 헤이즈'… 실루엣 • 디자인 날개 달았다!

팬텀, 플럼에디터 신상 도수테 런칭… 정밀 가공과 미니멀 디자인 조화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이 플럼에디터의 도수테 시리즈 헤이즈를 출시했다.



블랙, 실버, 골드 컬러로 구성된 헤이즈의 티타늄 소재인 프런트는 2.2T 티타늄판을 정교하게 가공해 견고하면서 깔끔한 스퀘어 실루엣을 완성했다.

플럼에디터의 관계자는 "탄성이 뛰어난 '리랙스 힌지'가 적용된 템플 구조는 베타 티타늄 소재로 제작돼 얼굴 폭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늘어나 착용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한다"며 "정밀한 가공과 미니멀한 디자인이 모던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가볍고 안정적인 착용감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 없이 스타일을 유지해 출시 초반부터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70-4257-6102

'까르뱅'… 올 여름의 스타일링 제안

투페이스, 실루엣과 미니멀 감각이 조화된 레이스 선글라스 출시



투페이스옵티칼(대표 고대우)의 대표 브랜드 까르뱅의 올해 여름의 스타일링 아이템으로 레이스 선글라스를 선보였다. 프렌치 감성에 기반한 까르뱅의 이번 신작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선글라스로, 트렌디한 실루엣과 미니멀한 감각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까르뱅의 관계자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프레임 라인은 데일리룩은 물론 휴양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컬렉션"이라며 "특히 이번 컬렉션은 얼굴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균형 잡힌 쉐입으로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전했다.

문의 053)353-7851

2026 고띠 스위스 신작은 '여성미' 강조

초경량 티타늄과 버터플라이 실루엣 눈길… 국내엔 순차 런칭

㈜한강옵틱(대표 송민수)에서 전개하는 고띠 스위스가 2026 S/S 시즌의 신제품 시리즈를 선보였다. 초경량 티타늄과 버터플라이 실루엣으로 완성한 고띠 스위스의 신상 '아말리아•아오스타'는 섬세한 곡선과 명확한 디자인 언어로 현대적인 여성미를 표현했다.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 라인이 돋보이는 버터플라이 쉐입으로 가볍고 세련된 인상을 전할 수 있고, 부드러운 라인은 타임리스한 우아함을 강조한이번 시리즈는 전면부를 넓게 설계한 프레임이 얼굴에 자연스러운 포인트를 더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강옵틱의 관계자는 "두 모델은 일본에서 초경량 티타늄 소재로 제작돼 뛰어난 기술적 정밀도와 편안한 착용감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이번 신작은 국내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2)3444-0358

안광학진흥원, 수성대학교와 MOU

지역 안광학산업 경쟁력 강화책 공동 모색… 디옵스 협조도 의견 일치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과 수성대학교(총장 김선순)가 지난 22일 안광학산업 발전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성대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지역사회와 안광학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 및 안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교재 공동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과 학술교류 ▶전시회 개최 협조 등 실무 협의에 따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원의 김종한 원장은 "향후 진흥원의 산업 지원 시스템과 수성대 안광과의 우수한 학술 인프라가 결합해 지역 안광학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 밀착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53)749-7065~66

시기능훈련교육협회, 정기 학술세미나

저시력 학생 시기능 평가 및 훈련 임상 공유… 올해 6회 세미나 개최 계획



OVDRA Korea 국제지부(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 이사장 신효순)가 지난달 22일 서울 교육관에서 '2026년 제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 저시력 및 시각장애 학생들의 시기능 평가와 시기능훈련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4년간 시기능훈련에 대한 임상 적용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과 역량을 높이고 있는 OVDRA 국제지부의 정기 학술세미나는 올해 총 6회 예정돼 있는데, 이번 1차 세미나에서는 저시력 학생의 기능적 시각 활용과 학습 참여,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실제 임상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목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선 신혜선 회원(OVDRA 4기)이 '저시력 아동 시기능평가와 시기능훈련', 이소정 회원(OVDRA 8기)이 '맹학교 저시력 아동 시기능훈련 사례', 김동숙 회원(수원 다본센터)이 '장애를 동반한 저시력 아동 시기능훈련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신효순 이사장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 사례와 학술 발표를 통해 시기능훈련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저시력 및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70-8274-3280

수성대 안광과, 다비치 우수사관 배출

양경미 씨, 제20기 우수사관에 선발되며 초봉 4천만원 획득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이효진 교수, 양경미 우수사관, 정지원 학과장, 손민지 사관, 권원정 공채, 박형민 교수.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정지원)의 졸업생 양경미 씨가 지난 21일 거행된 다비치안경 사관학교 20기 수료식에서 '우수사관'으로 선발돼 초봉 4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다비치안경체인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수성대 안광과 재학생에 산업체 장학금을 전달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모델을 보여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광과의 학과장인 정지원 교수는 "이번 우수사관 배출은 학생 개인의 노력과 대학의 체계적인 실무교육, 그리고 산업체와의 상호협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우리 학과는 앞으로도 안광학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함께 교육과 취업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53)749-7025

'탑콘' 번들 프로모션에 안경사 급관심

솔로스 구입 시 '옵틱 스튜디오' 증정하는 프로그램에 안경사 집중



㈜탑콘코리아메디컬(TKM)에서 공급하는 프리미엄 안경렌즈의 처방을 돕는 혁신적인 자동 렌즈분석기 '솔로스'와 스텍옵(Stackop)의 디지털 컨설팅 프로그램인 '옵틱 스튜디오'의 번들 프로모션이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초점렌즈부터 누진렌즈까지 버튼 하나로 정밀 측정·분석하는 프리미엄 자동 렌즈분석기인 솔로스와 근시·원시·난시 및 누진원리와 렌즈 코팅 정보 등을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렌즈를 추천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인 '옵틱 스튜디오'를 하나로 묶은 이번 이벤트에 전국 안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TKM의 관계자는 솔로스를 구입하면 옵틱 스튜디오를 설치 받는 이번 파격 프로모션에 대해 "이번 번들 프로그램은 안경원의 검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안경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얻는 렌즈 컨설팅으로 안경원 신뢰도를 더욱 높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6959-7947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회, 제주서 회원 미팅

APOC 전날 아약클 젊은 회원 다수 참여… 재학생 수업 설계법 공유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회(아약클) 한국 회원 미팅과 Train-To-Trainer가 지난 19일 제주도 헤비치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아약클의 한국 총괄인 박경희 교수(신한대학교 안경광학과) 주도로 개최된 이번 미팅엔 25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아약클 소식을 시작으로 처음 콘택트렌즈 수업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의 공유 등이 이뤄졌다. 또한 이번 미팅엔 글로벌 스폰서인 아큐브·쿠퍼비전의 교육 담당자가 산업체 세션으로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박경희 교수는 "올해는 특별히 20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APOC) 전날에 회원 미팅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콘택트렌즈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아약클 정회원은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콘택트렌즈 교육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khpark@shinhan.ac.kr

백석대, 아태 검안대회서 연구 성과 입증

시기능 평가 등 초록 6편 제출… 대학원 옵토메트리 연계 교육 관심도↑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 전공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APOC)'에 참가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백석대 대학원생들은 이번 APOC에서 총 6편의 초록을 제출하며 활발한 연구 참여를 보였고, 시기능 평가와 콘택트렌즈, 안과검사 등 다양한 주제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실제 검안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들은 APOC 참가자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김효진 교수(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 전공)는 "안경광학 학부 교육을 기반으로 대학원 옵토메트리 과정까지 연계된 교육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옵토메트리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041)550-2841

고기능 '싹싹 캔디케어 렌즈 클리너'

보이네컴퍼니, 안경과 관리제품 동시 판매법 제안… 디자인도 '앗싸'



보이네컴퍼니(대표 이소영)에서 출시하는 안경원의 소형 부가상품인 '싹싹 캔디케어 렌즈 클리너'가 소비자에게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리용품을 안경과 함께 제안하는 판매법이 새로운 매출 모델로 떠오르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캔디케어 렌즈 클리너는 기존의 일반적인 스프레이형 안경 세정제와 달리 캔디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10-9694-2418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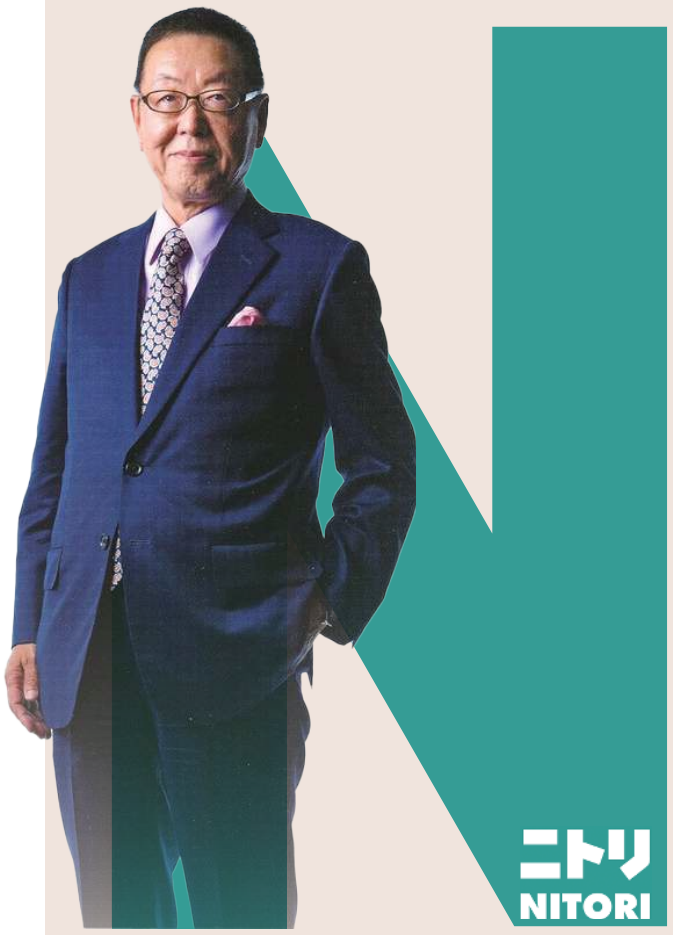


▶"얼굴 보면 신상 뜬다고?"… 메타 얼굴인식 안경에 시민단체 반발(ZD넷/4월 15일)
▶메타 스마트 안경, '몰카' 도구로?… '변태 안경' 조롱까지(뉴시스/ 4월 17일)
▶"AI 자막 안경, 세상 참 좋아졌네"… 극장 찾은 청각장애인들(국민일보/ 4월 20일)
▶삼성, 오는 7월 '갤럭시 AI안경' 출격… 스마트폰 없는 시대 연다(미디어펜/ 4월 21일)
▶머리도 깎고 안경도 맞추고… 장병들 함박웃음(국방일보/ 4월 21일)

30년 불황 극복한 일본기업 ② 니토리

‘니토리’의 성공 비결은 ‘수직 계열화’

일본의 가구 • 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초장기 불경기에도 37년간 지속 성장
30년 후 목표 먼저 세우고 10년, 3년, 1년 과제를 ‘역산 경영’하며 불황 극복



▲니토리 홀딩스의 창업자인 니토리 아키오 회장.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소재한 니토리 본사 전경.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초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과도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꺼지면서 고금리로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은 경제대국 2위를 추구하던 일본의 꿈을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일본 유통업계에서 37년간 매출과 수익에서 매년 고성장한 가구 및 인테리어 전문기업 ‘니토리 NITORI’. 니토리는 단순한 가구 소매점을 넘어 일본 유통업계의 ‘불패 신화’로 불리고 있다.

니토리는 1972년 설립해 가구 제조, 유통 및 생활 잡화, 인테리어용품 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일본에 808개 점포, 해외는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70개 점포가 있다.

니토리의 일본 가구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0%, 침구시장은 6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제조부터 물류, IT까지 직접 통제하는 독보적인 ‘니토리식 모델’을 기업 목표로 세웠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망설임 없이 불황을 이기는 ‘수직 계열화’의 힘으로 니토리의 성공 방정식을 작성한 것이다.

▶‘제조물류소매업(SPA)’의 완성 : 니토리 성공의 핵심은 고유의 사업 모델인 ‘제조물류소매업’이다. 일반적인 유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과 달리 니토리는 제품의 90% 이상을 자체 개발(PB)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중간 유통 마진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가 절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물류와 IT : 유통업의 혈관을 직접 뚫은 니토리는 스스로를 ‘물류 기업’이라고 부를 만큼 물류 혁신에 집착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배치된 거대한 자동화 물류센터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배송 속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니토리 디지털 베이스’를 설립하고, IT 인력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예측 및 물류 최적화를 도입했다. 또한 후지스의 양자 컴퓨팅 기술(Digital Annealer)을 활용해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 물류 효율의 극대화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전략 : 니토리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다. 예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대형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높은 도심 백화점과 쇼핑몰에 적극 입점하며 젊은 층과 1인 가구 고객을 흡수하는 도심형 매장을 확대해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취급 품목을 가구 이외에 의류, 가전, 반려동물 용품 등으로 다변화해 고객이 매장을 찾는 빈도를 높여서 성과를 거두었다.

▶철저한 현장 중심과 30년 장기 계획 : 니토리는 30년 뒤의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3년, 1년 단위로 거꾸로 계산해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는 ‘역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 직원이 한 부서에 오래 머물지 않고 2~3년마다 업무를 전환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는 멀티 플레이어 인재를 양성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토 확장 : 니토리는 일본 시장의 포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3년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에서 매장 수를 급격히 늘린 니토리는 2032년까지 전 세계에 3,000개 매장, 매출 3조엔 달성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케아가 도심 외곽에 대규모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니토리는 서울 및 수도권 도심 내 거점을 확보하여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면서 2032년까지 한국 내 2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 제공하는데 주력

결국 니토리의 성공은 제품을 단순히 싸게 파는데 있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의 제공을 위해 공급망 전체를 혁신하는 ‘집요한 자기 완결성’, 즉 ‘수직 계열화’와 ‘IT 기반 효율화’로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다.

니토리는 일본 상장기업 중 드물게 30년 넘게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다만 최근에는 엔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니토리의 2025년의 총 매출은 약 9,400억엔(약 8조 6,872억원), 영업이익은 약 1,200~1,300억엔(약 1조 1,090억원~약 1조 2,024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769억엔(약 7,106억원)이다. 2025년에 엔화 약세로 수입원가 상승이 실적에 부담을 주었으나 자체 비용 절감과 해외 비중 확대를 통해 극복 중이다.

니토리 아키오 회장은 “불황은 신이 주신 기회”라고 강조하며, 남들이 움츠러들 때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불황기에 땅값과 임대료가 떨어지면 오히려 신규 매장을 공격적으로 출점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저돌적인 경영법을 택한 것이다.

/ 김보라 기자

내 시야에 맞춘 선명함, '렌아 퓨어 원데이 토릭'



으뜸50안경에서 촉촉한 착용감의 '렌아퓨어' 난시용 콘택트렌즈를 오는 5월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렌아 퓨어 원데이 토릭'은 함수율 60%의 고수분 설계로 가벼운 착용감과 장시간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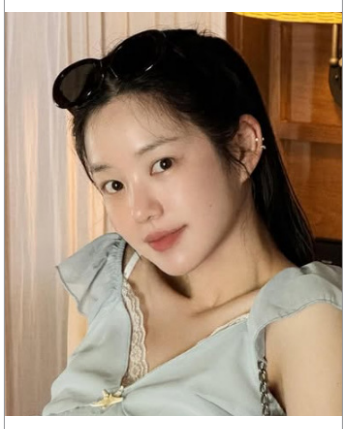
Entertainment



광희, 지드래곤과 깜짝 투샷

연예계 대표 '찐친'이자 1988년생 동갑내기인 가수 겸 방송인 광희와 가수 지드래곤이 변치 않는 우정을 과시했다. 지난 16일, 광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구 말이 맞는 걸까ㅋ 당연히 지용이지'라는 유머러스한 문구와 함께 짧은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지드래곤과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광희의 모습이 담겼다.

오후의 아이컨택 '이유비' 어깨라인 파스텔 룩 주목



배우 이유비가 무결점 인형 비주얼을 과시하며 근황을 전했다. 지난 25일, 이유비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유비는 안락한 분위기의 실내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발랄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봄의 청량감 전하는 함은정 소품 활용까지 감각미 물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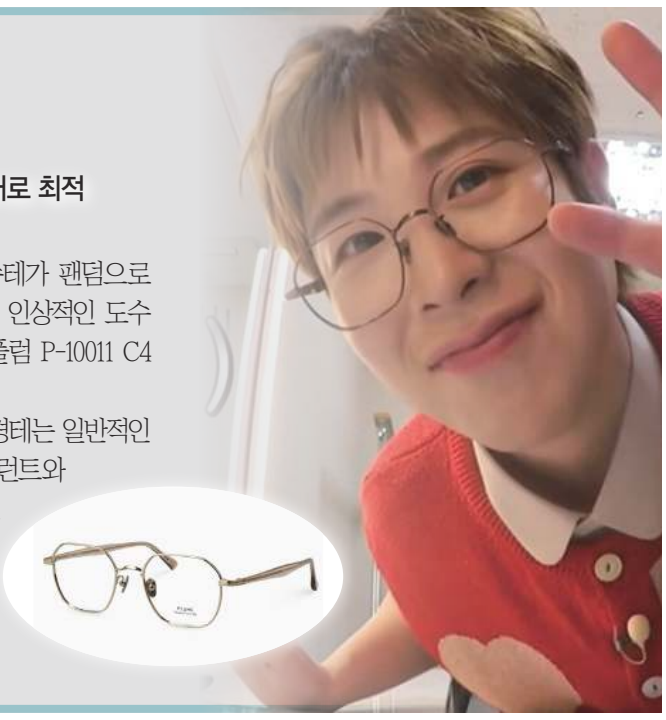
가수 겸 배우 함은정이 감각적인 소품 활용법을 공유했다. 함은정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웃으면서 힘을 내보아'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함은정은 자칫 단조로운 오피스룩에 포인트 아이템을 적절히 섞어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보였다.

블락피 래퍼의 최애 안경은 '플럼'

방송서 오버사이즈 빛나는 플럼 P-10011 즐겨 착용… 데일리 아이웨어로 최적

그룹 블락비의 멤버 피오가 최근 방송활동 중에 착용하고 있는 도수테가 팬덤으로 알려져 화제로 떠올랐다. 근래 피오는 오버사이즈의 라운드스퀘어 림이 인상적인 도수테를 방송과 자신의 개인 SNS 등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는 플럼 P-10011 C4 컬렉션으로 확인됐다.

메탈 프런트에 아세테이트 템플을 결합한 믹스앤매치 콘셉트의 이 안경테는 일반적인 아세테이트 롱팁 형태가 아닌 철심이 슈팅된 아세테이트 템플로 메탈 프런트와의 조화를 통해 가벼운 착용감과 밀도 높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는 어떠한 룩과도 어긋나지 않고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최적의 데일리 아이웨어로, 출시 초반부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발에 뿔테 착용 송혜교 '지적 꾸안꾸' 매력 발산

배우 송혜교가 일상에서도 감출 수 없는 미모를 과시했다. 지난 20일 송혜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유로운 근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송혜교는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이 가득한 야외 테라스를 배경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긍정 에너지 넘치는 가수 영탁

데님 청재킷에 안경 매치 훌륭… 스마트한 분위기 눈길

가수 영탁이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 사진에서 영탁은 편안한 데님룩에 지적인 이미지의 안경을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영탁은 데님 청재킷과 셔츠, 안경을 매치해 스마트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60대에 소녀미 여전한 서정희 꽃무늬 자수로 패션감각 뽐내

방송인 서정희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독보적인 패션 감각과 소녀 같은 비주얼로 누리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25일 서정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유로운 오후의 한때를 담은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 속 서정희는 화사한 피치 톤의 티셔츠와 풍성한 샤 스커트를 매치했고,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크로셰 두건을 착용해 빈티지한 감성을 극대화했다.

Quiz

	1	3		8				
		5						
	4			3	5	7	2	
	3			5			4	8
6	5	4	2		8	1		9
			3		9		7	5
		8	1	6	7	3		4
							1	
3				9		8	6	2

SUDOKU 기초 공략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SUDOKU 정답 〈지난호〉

9	1	8	3	2	6	5	4	7
4	6	7	8	5	1	9	2	3
3	2	5	4	7	9	1	6	8
5	4	2	7	1	3	6	8	9
8	3	1	6	9	5	4	7	2
7	9	6	2	8	4	3	5	1
2	5	9	1	4	8	7	3	6
1	7	3	5	6	2	8	9	4
6	8	4	9	3	7	2	1	5

doing MEDIA (두잉미디어) Optic Weekly
우(04501)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85, 101동 1106호 (만리동2가, KCC파크타운)
대표전화 : (02)-313-5585 FAX : (02)-363-0345
이메일 : opticweekly@naver.com 홈페이지 : www.opticweekly.com
취재국 / 영업국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02)-363-3885
등록일 : 2010년 1월 6일 등록번호 : 서울 다09905(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 : 우리은행(1005-004-387851) 예금주 : 두잉미디어
발행 : 두잉미디어 옵틱위클리 발행인 : 김태용 간별 : 격주간 구독료 : 년24,000원 1부 : 1,000원



국내 최대 안경체인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DAVICH

1 **가맹점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2 **안경사 전문 교육**에 앞장 섭니다.
사관·공채를 통한 전문 인재 보급,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3 **지역핵심 상권**을 찾아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오픈

4 **가맹점의 매출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과 맞춤 컨설팅 시스템 제공







다비치안경은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DAVICH 릴레이 오픈중

2026 5월 화성시청점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상일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까치산역 / 화곡역 / 신방화사거리 관악구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역 구로구 :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 구로구청사거리 / 개봉역 / 대림역 금천구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상도역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역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사거리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모래내시장 서초구 : 반포동 고속터미널 / 교대역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동구 : 행당동 무학여고사거리 / 성수동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역 / 한성대입구 송파구 : 문정동 법조타운(가든파이브)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대학로 / 경복궁역 중구 : 을지로4가역 / 신당역 / 약수역 사거리 중랑구 : 신내동 / 동부시장 영남 부산 : 센텀시티역 벡스코 / 부산시청앞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 기장정관 울산 : 화봉동 대구 : 지산동(지산역 사거리) / 침산동 / 화원삼거리 경북 : 구미 옥계동 / 문경 경남 : 진주 평거동 경기 광명 : 광명KTX역 / 철산역 / 소하동 부천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정자역 / 오리역 시흥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안양 : 범계역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역북지구 의정부 : 회룡 인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탄현역(중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오전동(의왕 이마트 앞) 화성 : 화성시청신도시 안성 : 공도 강원 홍천 대전 관평동 / 도마동 / 월평동 충남 배방읍 아산역 / 천안행정타운 광주 금호지구 / 일곡지구 / 봉선동 / 운암동 전남 여수 웅천동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 이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 jewdas305@davich.com

다비치 안경 다비치 보청기 다비치 홀딩스 KVISION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4월 30일 발행 (391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JIN OPTICAL 국내 최저가 공급 www.opticalomarker.com

도수렌즈 완제품 국내 최다보유 ● CR 평면, 밀러렌즈, 각종 평면렌즈, 다량 보유

취급 품목 CR39, 중굴절, 고굴절, 중누진 변색렌즈, 고굴절 청광 차단렌즈
중·고굴절 컬러 초발수 렌즈 등 각종 Rx렌즈 취급

진광학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선입금•현금 판매만 가능,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TEL. 02-773-1001, 752-2810•FAX. 02-757-8173, 775-1002

www.diart-smartgla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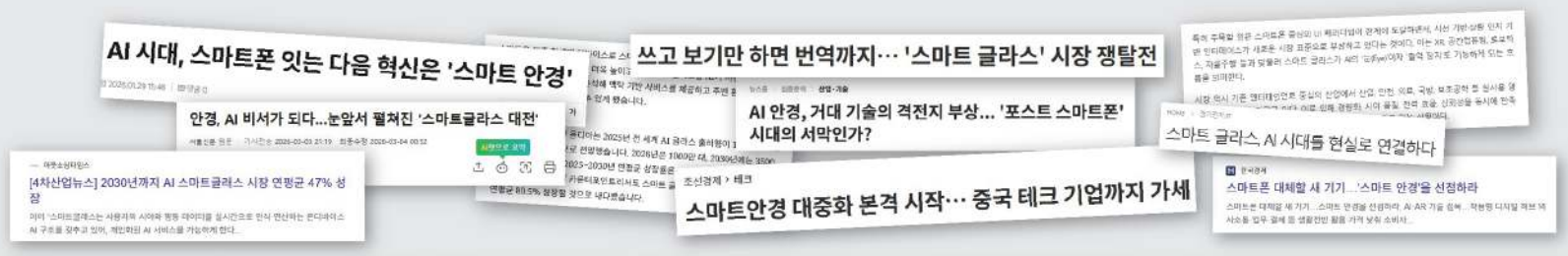
국내유일 AI 스마트글라스 AINOON

Di Art

The NEXT OPTICAL Store

안경원의 미래, 지금 시작됩니다!

스마트안경 시대의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Apple, Meta 등 모든 빅테크 기업이 참전하는 시장성패의 핵심은
'시광학 전문성(Optical Expertise)'

스마트글라스의 'Last Mile'은 오직 안경원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스마트 글라스, 모두 함께 성장할 기회입니다.

국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AI 스마트 안경 "ainoon" 공식 판매점 모집

VMD 지원
'스마트 독(Smart Dock)'
파격가 제공과 판매 매뉴얼 지원
(선착순 매장 지원)

상권 보호
시장의 성장에 맞는 광범위한
지역 상권보장

마케팅 지원
본사 온라인 광고 시
'우리 동네 취급점' 우선 노출과
마케팅 집중 지원

교육지원
'테크-옵티션(Tech-Optician)'
전문가 과정 무상 교육 및
공식 인증 현판 제공

제품 안내

공식 판매점 안내

(초기 200호 판매점 한정 혜택)